

사서교사 무엇을 할 것인가?

— 학습방법의 학습지도 —

박 용 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學校教育이 살아 있는 것이 되려면 學校圖書館을 살리는 데 있고 學校圖書館을 바르게 살리려면 司書教師로 하여금 제위치에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I. 學校教育·學校圖書館·司書教師의 現住所

1. 學生들의 學力은 學校生活을 통해서 길러지고, 또한 現代學校教育이 지향하고 강조하는 점은 '問題解決學習'에 있다. 이 문제해결학습능력을 신장시키려면 학교교육은 文獻誘導的·圖書館의 方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 현실은 어떤가? 때때로 학교교육이 論議의 대상이 될 적마다 한결같이 개탄하거나 크게 염려하면서 깊은 反省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의 教育方法이 과연 正道를 걷고 있느냐 옳으며, 學校는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학교가 入試나 就職을 위해 오로지 '試驗 잘치는 技術' '成績 올리는 기술' 따위나 向上시키는 方法을 가르치는 데만 급급해도 되느냐 하는 점 이었다. 다시 말하면 古踏的 教科書 注入式講義에 暗記爲主 一邊到의 교수·학습활동이 최선의 教育方法으로 알고 이에 安住하려고 하는 學校가 정말 教育 본래의 목적-自主的·創意的·全人的 人間像 形成-을 달성하는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런 가운데서 學生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自主學習力'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이다.

2. 한편, 學校教育을 교육답게 만드는데 있어 中樞的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學校圖書館은 과연 어떤가?

이상과 같은 학교교육의 영향으로 학교도서관은 단순한 공부방, 자습실, 독서실화되고 있는가 하면, 司書教師는 書庫와 書架의 먼지털기·열람실의 청소 관리·自習指導에 급급하고 있지 않은가? 더 비통한 일은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에서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의 하나로 인식되고, 도서관·열람실은 학생과 교직원의 입에서 한결같이 '독서실'로 誤稱되고 있는가 하면 司書教師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겨져 없어도 괜찮다고까지 하면서 '아저씨' '서고직이' '일반교사와 다른 레벨에서의 호봉산정과 인사이동 대상자' 視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러한 現與件에서 學校圖書館을 어떻게 제도에 올려 놓게 할 것이냐? 물론 '학교장의 깊은 이해'와 '예산의 뒷받침' '제도의 개선' 등을 先決條件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筆者의 경험에 터잡은 견해로는 學校圖書館機能 발휘의 一次的 責任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질적 주체자인 司書教師 자신의 能力과 熱誠 정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學校圖書館을 살려서 학교교육을 바르게 나아가도록 방향지우는데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반성이 앞서야 하겠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司書教師는 현재의 教育過程·教授·學習方法 전반에 관하여 비판적인 태도와 그 改善에 대한 확고한 意志를 지니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助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現代教育이 강조하는 問題解決學習能力的 배양을 위해서는 그 先修學習階段인 學習方法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에 관한 연구와 지도를 司書教師가 學校圖書館을 통하여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II. 司書教師의 職位와 職務

1. 職位

(1) 司書教師는 教育法에 따라 임명되어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질적·직접적인 責任者이며 ‘학교도서관 기능’ 수행의 主體者다. 따라서 전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사서교사의 英語表記는 Teacher, Librarian 이다(Librarian Teacher가 아니다) 이것은 司書教師는 教師이자 司書이고 司書이면서 教師라는 신분을 지닌 자로 풀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사서교사는 公共圖書館의 司書의 地位와도 다르고 一般教科教師와도 다른 資格要件(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二重的 職위를 지닌 사서교사는 ‘교사’로서는 자기의 專門의 分野의 知識에 터잡은 指導的 能力을 소지하여야 하고 또한 ‘사서’로서는 탁월한 經營者의 能力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면에서 모든 사서교사는 自負心과 矜持를 지녀야하고 國家는 마땅히 응분의 대우를 法的으로 확실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保障해 주어야 한다.

(3) 司書教師가 自己位置를 차지하려면 먼저 學校圖書館의 機能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자기의 職무의 범위와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직시하고 자기가 司書이기 전에 ‘교사’라는 위치와 職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서교사가 단순히 일반司書와 같

은 업무(자료의 정리와 대출) 수행에만 만족하면서 학교생활을 영위한다면 이는 교사로서의 자격이나 직무를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 학교도서관과 학교에 큰 누를 끼치고 말 것이다.

2. 職務

사서교사의 職무는 학교도서관기능면에서 고찰할 수도 있으나 편의상 교사와 사서 투입장과 이를 종합한 도서관 운영자의 면에서 살펴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1) 教師로서의 職무

- ① 학교도서관 및 그 자료의 이용법 지도
- ② 독서학습-학습방법-지도
- ③ 학교도서관 안에서의 자료 이용 태도 지도
- ④ 학생도서관위원 지도
- ⑤ 클럽(특별)활동 지도
- ⑥ 독서회·전시회·감상회 등의 집회와 그 밖의 학교도서관 행사지도

(2) 司書로서의 職무

- ① 학교 도서관자료의 선정
- ② 자료의 수서 및 정리
- ③ 독서자료의 조사 연구와 그 내용 소개
- ④ 비도서자료의 기사색인 작성
- ⑤ 특수자료의 작성
- ⑥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참고 서비스
- ⑦ 교사의 교재준비에 대한 협력

(3) 운영자로서의 職무

- ① 학교도서관의 조직·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 ② 예산 편성 및 관리
- ③ 각종 시설 및 비품의 정비
- ④ 학교장과의 협의·보고·결재
- ⑤ 타도서관·연구기관 등과의 연락·협조
- ⑥ 학교도서관 운영결과의 평가와 개선

이처럼 광범위하고 막중하며 힘에 겨운 벽찬 職무의 수행에는 상당한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경영능력과 재간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도저히 학교도서관을 살릴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현재 여건들을 고려할 때,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학교도서관을 살릴 수 있기 위한 中心的 직무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연구·개발하여 이를 소개하고 지도하는 일에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것은 바로 '학교도서관을 통한 讀書學習-學習方法-의 지도와 學校行事와 관련된 讀書資料紹介 및 학교도서관교육의 안내'에 관한 활동이다. 이는 현대교육이 지향하는 問題解決學習의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司書敎授의 敎授·學習觀

司書敎師는 해당 교과의 敎科書만 가르치면 되는 一般敎科敎師나 도서관자료의 정리와 대출 등 봉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司書와도 다르다는 것이 이미 지적한 바다. 司書敎師는 學生들의 問題解決學習能力이나 自主學習力의 伸張에 필요한 體系的인 學習方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눈을 돌려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教育活動에서 自主學習力 伸張에 障礙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1. 學習方法으로서의 讀書學習

학생들의 學力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길러지고 學校生活의 主된 領域은 敎科學習活動에 있으며, 교과 학습활동은 冊(敎科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책은 읽어야 비로소 그 內容을 파악할 수 있고 읽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가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바는 冊을 어떻게 바르게 빨리 읽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책의 內容 자체를 읽고 공부하는 활동인 學習讀書(Reading to learn)의 先修學習段階에 해당하는 것으로 讀書學習(Learning to read)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독서학습은 어느 특정교과의 지도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汎敎科的으로 活用 가능한 學習方法이 되는 것이다.

2. 看過해서는 안될 事項들

司書敎師는 다음과 같은 自主學習力 伸張에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의면해서는 결코 안된다.

(1) 학교도서관의 위치

오늘날 教育者나 教育學者치고 J. Dewey의 <學

校와 社會>를 모르는 자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학교의 모든 시설은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 배치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등지고 있던 말인가?

(2) 수많은 교육관계 연구물들

매년 教育방법-교수·학습지도-전반에 관계된 연구물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심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一般化되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는 연구를 위한 연구, 점수 따기 위한 연구활동의 현실 등을 그대로 좌시하고 있어도 되는가?

(3) 冊의 개요파악법

학생들은 책을 통하여 학습활동을 전개하면서도 책의 구조나 책을 읽는 순서, 책의 개요를 파악하는 요령도 모르는채 그저 본문의 단편적 지식의 암기와 이해에 급급한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이를 간과해도 좋단 말인가?

(4) 敎科書의 문제점들(형태상)

① 해당 교과의 교과서가 '冊'으로서의 기본형태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아랑곳 없고 다만 그 내용의 단편적 지식만 알면 된다는 식의 교수·학습활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좋단 말인가? (예를 들면, '머리말'이나 '색인'도 없는 교과서를 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다. 이 경우 과연 학습자가 그 교과를 배우는 목적을 알고 배우고 있다고 보는가? 또한 '일러두기'도 없는 교과서의 경우 거기에 나온 약호나 약자의 원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학습자는 교사가 가르쳐 주는대로 그 뜻만 무조건 외우면 된다는 식의 학습활동이 아닌가?)

② 색인(찾아보기)의 경우

학생의 자주학습이 가능하도록 대소주제로 구분하여 그 표목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휘의 나열식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본문에 등장한 중요어휘를 모두 수록치 않은 무성의를 보이고 있다(특히 人名의 경우). 또한 外來語의 표기에는 그 원철을 병기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어 비통일적 상태다. 특히 결정적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外國人名의 표기에서는 실로 可觀일 정도다. 그 교과

서의 저자는 人名表記 世界統一方式도 모르고 있는지 순한글로만 표시하거나 어떤 인물은 full name으로 또는 surname으로 나열해 놓는 등 뒤죽박죽으로 이 역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人名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마다 콤마(,)를 붙여 놓고 있어 어느 것이 姓인지 구분키 어려운 교과서도 있었다.

(5) 교과서의 內容上의 문제점

교과서에 소개된 외국인의 명언이나 외래어의 뜻이 번역상 원문과 다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한 것인양 그대로 교수·학습되고 출제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둘 것인가? (예를 들면, A. 링컨의 민주정치の本질을 설명했다고 하는 Gettysburg's Address의 한 부분은 원문의 배경과 내용전체로 볼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政治”가 아니라 “……政府”라고 해야 옳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경우도 그 원철을 반드시 밝혀 併記해 놓아야 하며 그 원어의 뜻은 ‘물가의 상승’이 아니라 ‘통화의 팽창’이라고 해야 옳다. 왜냐하면 통화팽창의 결과가 물가의 상승인데 교과서에는 이를 뒤바꿔 놓고 있다)

(6) 讀後感想文 작성만해도 그렇다. 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요령이나 독후감상법에 대한 지도도 하지 않은채 독후감상문의 제출을 요구하다 보니 학생들은 독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書名-題名·單元名-이 갖는 두가지 뜻인 literal meaning과 figurative meaning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는 무시한 채 무조건 스토리와 플롯 중심의 감상과 이해로 끝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제목에 함의된 저자의 사상이나 요지를 발견못하는 감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번역서의 경우 더욱 그 제명이 갖는 의미가 독서시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세계名作중 誤譯에 가까운 것이 무려 20여편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을 읽는 독자들은 한결같이 original title을 무시하고 감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바른 讀書教育이 되도록 할 것인가? 실로 司書教師의 責任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7) 각종 참고도서의 활용문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의 활용법에 대하여 배운 자 몇명이나 되는가? 책을 읽는 순서나 책의 개요요약법 및 독후감상법에 대하여 배워보지 못한 것처럼 사전류의 사용법을 배운자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대부분은 사전을 활용하기 보다는 참고서나 단어장의 낱말풀이에 의존하는 현실이 아닌가?

(8) 학교도서관자료 검색에서 색인활용

사전활용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인지라 학교도서관자료 검색에서 도서목록카드의 이용요령이 미숙하여 아예 이것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처럼 필요한 정보자료의 검색능력도 없는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우리 사서교사가 외면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상과 같이 우리 司書教師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문헌유도적 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재의 교수·학습활동에 학교도서관이 生動感 넘치는 산 교육장이 되게 하는 일에 누구 보다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학교도서관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들 스스로가 살아 있는 학교교육이 되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연구하여 계획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IV. 學習方法的 學習指導

1. 司書教師가 專擔해야 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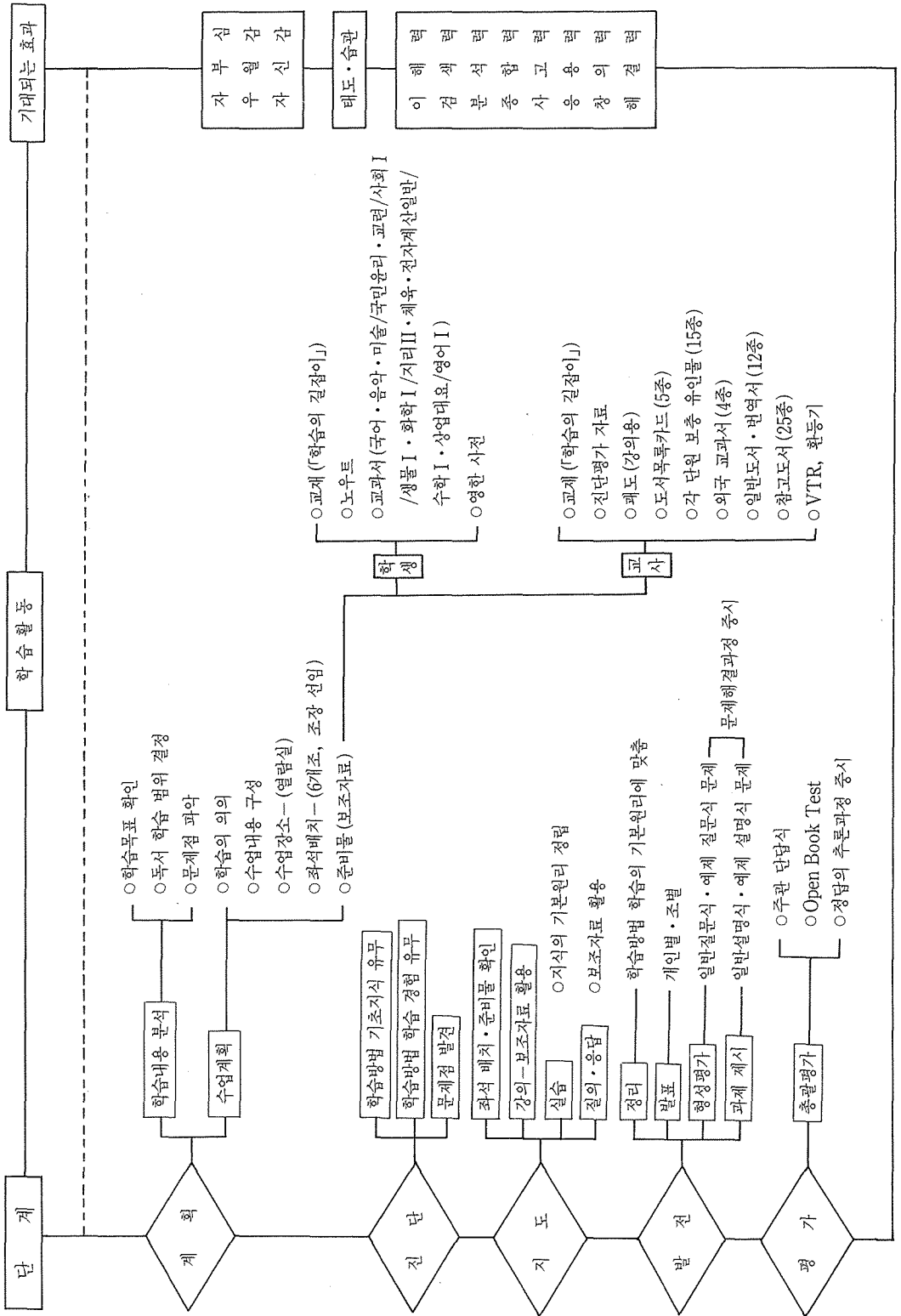
(1) 학습방법의 학습-독서학습-전반에 대한 體系的인 指導를 一般教科時間에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學校教育課程 運營上 이를 전담 지도할 교사가 없고 있다고 하여도 그 실천에는 문제점이 많다.

(2) 司書教師는 일반적으로 ‘도서관과 도서’에 관하여 전문적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기술적으로 요리하고 있으므로 學校教育의 目的과 教科를 이해하여 양자를 연결시켜 文獻誘導的 教授·學習 活動이 되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3) 司書教師는 教科書의 ‘冊’으로서의 未備點에 대해서는 물론 그 내용상의 誤謬에 대한 근거를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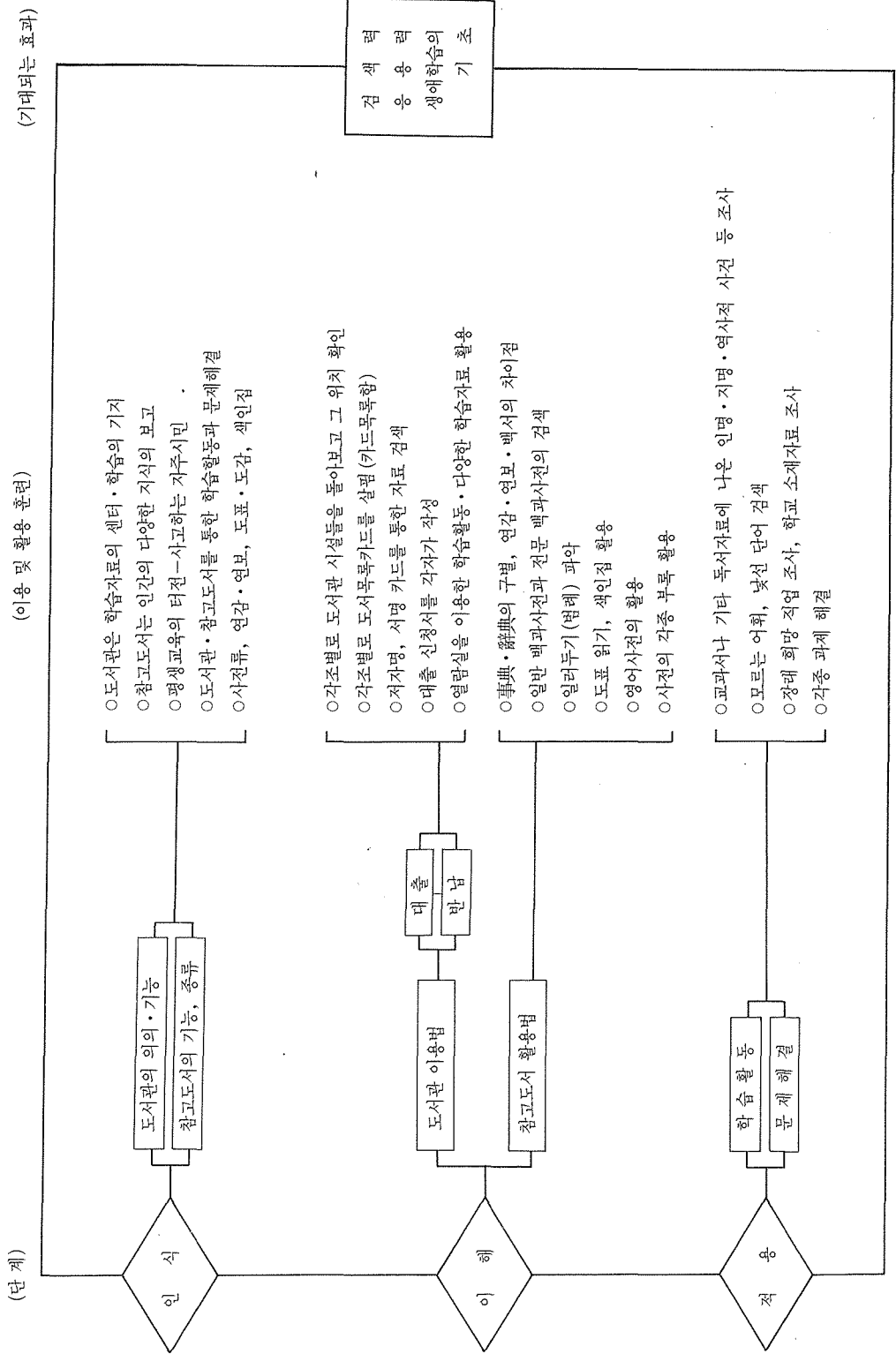
“학습 방법” 수업과정 모형

[도표 1]



도서관 이용 및 참고도서 활용훈련

[도표 2]



獻資料의 제시에 의해 지적하고 보완·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

(4) 汎敎科的으로 活用가능하게 體系的으로 作成된 讀書學習資料는 아직 사서교사 이외의 손에서 개발된 바가 없다.

(5)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학습방법에 관한 문헌인 「Effective Study」와 「Good Study Habits」등을 보아도 그 내용은 곧 독서학습을 다루고 있고 책의 개요파악법이 전부다.

(6)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방법이나 독서학습 또는 책을 바르게 읽는 요령 등에 대하여 배운 경험이 없는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통하여 사서교사가 전담하는 것인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 학습방법의 학습지도 방법

(1) 학습방법의 내용 : 제V 참조

(2) 매년 제1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1시간으로 1

년간(2단위 이수) 실시함이 가장 효과적이다.

(3) 수업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5단계 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함이 좋겠다(표 1).

(4) 실시 시간 및 장소

자유선택교과로 선정하여 정규교과시간으로 운영하며 주로 열람실을 이용한다.

V. 학습방법의 학습지도 내용

다음은 필자는 학습방법-독서학습-에 관하여 10여년간 무려 85종의 문헌(자율학습, 학습방법, 독서지도, 책, 도서관에 관한 것 및 국내외 고등학교용 교과서 등)를 참고로하여 연구·실제로 지도한 결과를 敎科書形態로 꾸며본 것이다.

1. 주요학습단원

총5단원 20장으로 구성하고 매단원마다 2단원의 '익힘문제'를 수록하였다.

(표 3)

단원차례

I. 학습의 기초	1. 학습방법으로서의 독서 학습1 2. 용어 해설2 3. 책을 읽은 순서4 4. 책을 다루는 법4 5. 문제 연구 방법5 ※ 익힘문제
II. 자료 검색	1. 도서관 이용법9 2. 인명 검색법13 3. 참고도서 활용법15 ※ 익힘문제
III. 자료 분석	1. 책의 개요 파악법25 2. 중요부분 표시법27 3. 독서력 개발28 ※ 익힘문제
IV. 문제 해결	1. 서 명33 2. 독후감상의 표현36 3. 과제 해결법38 4. 사고력·응용력 개발40

IV. 문제해결	5. 노트 사용법43 6. 발 표.....45 ※ 익힘문제
V. 특별자료 안내	1. 신체장애자용 도서.....53 2. 고전-경전-54 3. 명저 소개용 도서56
부 록	1. 참고도서의 종류59 2. 각종 어학사전의 부록 종합일람표60 3. 자주학습 노트 예시63 4. 철학적으로 쓰이는 어휘64 5. 직업선택시 고려사항.....65 6. 장애자와 관련깊은 저서67 7. 명저 소개용 도서목록68 8. 문제 해결 예시(1·2)69

2. 구체적 내용
지면관계로 생략

VI. 끝맺는 말

1. 이상으로 필자는 우리 司書敎師가 오늘날 學校에서 무엇을 하여야 제자리를 찾아 보람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겠는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잘못되어도 한없이 걱정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學校敎育을 바르게 살리려면 학교교육의 중심 기관이 되는 학교도서관을 살려야 하고, 학교도서관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려면 학교도서관의 운영 주체인 司書敎師를 살려야 한다. 사서교사를 살리는 길은 그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학교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사서교사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볼 때, 敎師로서나 司書의 입장에서나 비참하다고 할 정도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학교 최고 관리층과 담을 쌓거나 동료 교사들과 격리되고 극히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과는 아예 접촉할 기회마저 상실한 채 자폐증적 위치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예산의 부족을 탓하고 학교 관

리층의 무성의에 대해 불만이나 토로하고 입시제도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도서관의 기능수행을 중단, 좌시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오늘날 학교교육현장에서 정말 학생들의 自主學習力을 바르게 지도, 신장시켜 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며 교사가 누구인가를 통찰하여야 한다. 그는 곧 학교도서관이요 사서교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책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화하며 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학교 실정에서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사서교사는 스스로 찾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점들이 사서교사가 가질 윤리적 태도요 자량이다. 비록 도서관 시설의 미비, 예산의 부족, 책 한권 없다하여도 사서교사는 도서관기능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교사’로서의 指導的 機能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문제해결학습의 밑바탕이 되는 ‘학교도서관을 통한 문헌유도적 학습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활동인 것이다.

2. ‘학습방법의 학습지도’는 학교교육이 교과서의 단편적 지식의 주입식교수와 무조건적 암기 위주의 학습 풍토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것이다. 실로 학교와 학교도서관 및 학생의 장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설정된 교과가 이것 이외에 또 어디 있겠는가?

3. 따라서 '학습방법'은 앞으로 개정교육과정(90학년도시행)상의 필수 선택교과 중 敎養敎科로 반드시 채택되어 각 학교에서 지도되어야 한다.

4. 학습방법의 학습지도로 학교도서관은 생기를 되찾고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5. 물론 필자가 개발한 자료의 내용은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학습방법의 학습지도가 實效化되려면 먼저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확충보완과 교사·학생의 교수·학습관의 전환, 교수방법의 개선 등도 있어야 한다.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6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 2. 보내실곳 :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 535-4868·5616

-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